

# 잡아함 47 신경(信經) ①

날짜: 1월 4th, 2024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631>

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.

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.

“신심(信心)이 있는 선남자(善男子)라면 마땅히 이렇게 생각 하라.

‘나는 마땅히 법에 수순하여 색에 대해서 싫어하여 떠남[厭離]을 많이 닦아 머무르고, 수 · 상 · 행 · 식에 대해서 싫어하여 떠남을 많이 닦아 머무르리라.’

신심이 있는 선남자는 색에 대해서 싫어하여 떠남을 많이 닦아 머무르고, 수 · 상 · 행 · 식에 대해서 싫어하여 떠남을 많이 닦아 머무르기 때문에, 색을 싫어하게 되고 수 · 상 · 행 · 식을 싫어하게 되며, 싫어한 뒤에는 탐욕을 떠나 해탈하고 해탈지견(解脫知見)이 생겨 ‘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,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’고 스스로 아느니라.”

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,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밟들어 행하였다.